

광주 연고 선수·지도자 9명, WBC 4강 이끈다



이강철 감독·진갑용 코치 조련 베테랑 투수 양현종 리더 역할 이의리·고영표·김윤식 호투 기대 나성범·양의지·이정후 맹타 주목



이강철 감독, 진갑용 코치, 양현종, 나성범, 이의리, 양의지, 고영표, 이정후, 김윤식

8일 개막한 2023 월드베이스클래식(WBC) 한국대표팀에 승선한 광주 연고 야구 지도자와 선수들이 14년 만에 4강 도전의 선봉에 나선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WBC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은 9일 오후 12시 일본 도쿄돔에서 호주와 B조 본선 1라운드 1차전을 시작으로 4강을 향한 진검 승부를 펼친다.

한국은 호주(10일), 체코(12일), 중국(13일)과 B조 1라운드를 차례로 거친 뒤 조 2위 안에 들면 15일부터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8강전을 치르게 된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2009년 WBC 이후 14년 만에 4강 진출에 도전한다. 2013년과 2017년 대회 1라운드 탈락 수모를 당한 한국은 이번 대회 4강 진출을 통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한다는 목표다.

그 선봉에는 광주 연고의 지도자와 선수들이 있다. 광주일고 출신 이강철(KT) 감독과 KIA타이거즈 진갑용 배터리 코

치를 비롯해 투수 양현종(동성중·KIA), 이의리(광주일고·KIA), 고영표(동성중·KT), 김윤식(진흥고·LG), 포수 양의지(진흥고·두산), 외야수 나성범(진흥고·KIA), 이정후(서석초·키움) 등이다.

처음 국가대표 지휘봉을 잡은 이강철 감독은 한국 야구의 명예 회복에 앞장선다.

선수 시절 해태 타이거즈 왕조 시대의 주역인 이 감독은 2009년 한국시리즈에서 타이거즈 투수코치로 V10을 이끌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예선 선동열호 투수코치로 우승을 견인했고, 2021년 한국시리즈에서 KT 감독으로 팀의 첫 우승을 이끌었다.

선수 분석과 효율적인 기용 능력이 뛰어난 이 감독은 단기간 투수운용 능력을 펼쳐 한국을 4강 반열에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려한 대표팀 코치 이력을 자랑하는 진갑용 배터리 코치는 이 감독을 보좌하며 포수들의 안정적인 포구와 투수 리드, 상대 도루저지 능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진 코치는 2017년 아시아프로 야구챔피언십(APBC), 2018년 아시안 게임, 2019 프리미어12, 2020 도쿄올림픽 배터리 코치로 참가했다.

동성고 출신 KIA 좌완 에이스 양현종은 큰 경기 경험이 많은 베테랑으로 대표팀의 젊은 투수들을 이끈다.

양현종은 KBO리그 통산 159승을 기록, KBO리그 역대 개인 통산 다승 3위에 올라 있고 지난해에는 리그 사상 첫 '8시즌 연속 170이닝 소화'라는 금자탑을 쌓은 대투수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었고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7 WBC,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9 프리미어12 등 국제대회 경험도 풍부하다.

광주일고 출신 이의리는 데뷔 시즌인 지난 2021년 19경기에서 4승 5패, 평균자책점 3.61을 기록하며 신인왕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29경기(154이닝)에서 10승 10패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 데뷔 첫 10승을 거뒀다.

2021년 도쿄올림픽 대표팀도 발탁돼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였던 이의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국제무대 경쟁력을 선보일 각오다.

광주대성초와 동성중, 화순고, 동국대를 거쳐 2014년 KT에 입단한 사이드암 고영표는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고영표는 당시 미국전과 일본전에 등판해 9.2이닝 동안 6실점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 한국의 첫 경기인 호주전 선발 가능성이 높은 고영표가 호투로 기분 좋은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고를 졸업하고 2020년 LG에 입단한 좌완 김윤식은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첫 국제무대에서 활약을 다짐하고 있다. 김윤식은 지난해 LG 선발한 자리를 꿰차며 23경기 8승 5패 평균자책점 3.31로 팀의 정규리그 3위를 이끌었다.

야수진에선 서석초 출신의 외야수 이정후는 이번 대회에서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다. 지난해 타격 5관왕(타율·안타·타점·장타율·출루율)과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 만큼 타격감이 좋다. 특히 올시

즌을 마치면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계획이어서 호타준족의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고 출신 듀오 양의지와 나성범에 대한 기대도 크다. 양의지는 영리한 두뇌와 안정된 리드로 '곰의 탈을 쓴 여우'라는 별명을 얻은 국내 최고의 포수다. 포수 부문 골든글러브만 7회 수상했고 2021년에는 30개의 홈런을 치며 지명타자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만큼 한 방을 비롯한 공격력도 갖추고 있다. 2015년 프리미어 12 우승부터 2021년 도쿄올림픽 참가까지 국제대회 경험도 풍부해 투수들의 호투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나성범은 지난해 전 경기(14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0에 21홈런 97타점, 장타율 0.580, 득점권타율 0.316을 기록하는 등 장타력과 해결력까지 갖춘 외야수다. 그는 주전 우익수 겸 상하위를 연결하는 타선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일고 출신의 김기태(KT) 대표팀 타격코치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7일 조기 귀국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8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마지막 훈련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젊은 선수 성장 만족”… KIA, 스프링캠프 마무리 오늘 귀국

11일 챔스필드서 자체 연습경기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2023시즌 스프링캠프를 마무리하고 9일 귀국한다.

KIA는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오키나와에 스프링캠프를 차렸던 선수단이 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8일 밝혔다.

KIA 선수단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체력 및 기술훈련으로 몸을 만든 뒤, WBC 대한민국 대표팀

과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총 5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선수단의 훈련 분위기를 이끌며 솔선수범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팀 리더상’은 투수 김대유와 이준영, 외야수 김호령에게 돌아갔다.

성실한 훈련 태도로 미래의 주역이 될 선수에게 주어지는 ‘팀 미래상’은 투수 최지민과 내야수 변우혁, 김도영이 공동 수상했다.

이번 캠프를 이끈 김종국 감독은 “3년 만의 해외 스프링캠프였는데 큰 부상 선수 없이 캠프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

행이다. 댁스강화를 첫 번째 목표로 한 이번 캠프에서 투타 모두 젊은 선수들이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과 일본으로 이어진 긴 캠프를 잘 소화해준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시범경기까지 잘 준비해서 팬 여러분들께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IA 선수단은 귀국 후 10일 하루 휴식을 취하고 11일부터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자체 연습경기과 훈련을 소화한 뒤 대전으로 이동해 시범경기를 준비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KIA 올해 평균 연봉 1억1747만원

총액·평균 모두 리그 최하위

KIA 타이거즈 선수단 평균 연봉이 1억 1747만원, 총액은 59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KBO리그 전체 구단 중 총액과 평균 모두 최하위다.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신인과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2023 KBO리그 10개 구단 소속선수 506명의 평균 연봉은 1억4648만원이다. 지난 시즌 1억 5259만원보다 611만원, 4.0% 감소한 금액이다.

전체 연봉 총액 역시 지난 시즌 804억 1720만원에서 62억9900만원 줄어든

741억1820만원으로 나타났다.

KIA 타이거즈의 평균 연봉은 지난 시즌 1억3769만원에서 1억1747만원으로 감소했다. 2022만원, 14.7% 줄어 10개 구단 중 평균 연봉과 총액은 가장 낮고, 인상률은 SSG 랜더스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이 가운데 상위 5명은 △최형우(9억) △나성범(8억) △양현종(5억) △김선빈(4억5000만원) △정해영(2억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구단별 연봉 총액과 평균 연봉은 SSG가 각각 94억8200만원과 1억7559만원으로 최상위에 올랐다. **한규빈 기자**